

독일에서의 화행론의 수용과 변용*

김 두 규
(우석대학교)

Kim, Du-Gyu. 1999.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Speech Act Theory in Germany. *Linguistics* 7-2, 289-302. Speech act theory was essentially discussed by linguistic philosophers such as J. L. Austin and J. R. Searle, who were subject to the influence of L. Wittgenstein. Therefore speech act theory has been principally the subject of the linguistic philosophers. As the speech act theory was introduced in Germany since the late 1970's, it was accepted and transformed by some linguists such as F. Hundsnurscher, G. Hindelang and W. Franke. This paper explores the transformed forms of the orthodox speech act theory, namely 'the extended speech act theory' and 'the dialogical grammar'. (Woosuk University)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화행론(speech act)의 수용과 그 변용을 추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speech act(독일어 Sprechakttheorie)의 우리 글 번역은 '발화행위', '화행론', '화용론', '언어행위 이론' 등이 가능하나 이 글에서는 화행론(話行論)으로 통일시키기로 한다. 또한 독일에서의 화행론의 수용 및 변용이라는 논제이긴 하지만 독일의 화행론 학자들 전체가 모두 동일한 학적 방법론이나 주장을 견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 학파를 다룬다는 것을 전제한다.

화행론을 다양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행론의 개념들을 열거한 뒤 이 글에서 취할 개념을 밝히기로 한다.

화행론은 '기호범주', '지시적 의미', '언어수행 이론', '의미 이론', '텍스트 이론', 그리고 '언어행위 이론' 등 다양하게 정의되거나 이해되고 있다.¹⁾

* 이 논문은 1999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1. Grewendorf, G./Hamm, F./ Sternfeld, W. 1987. Sprachliches Wissen - Eine

이 논문에서 전제하는 화행론의 개념은 '언어행위 이론'으로서의 화행론이다. '언어행위 이론'으로서의 화행론에서 다루어지는 대상들을 Grewendorf, Hamm, Sternfeld(1987) 등 3인의 공저 <언어학 개론 Sprachliches>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언어 발화를 통해 행위가 수행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어떤 행위가 어떤 발화를 통해 수행되는가 하는 사실은 무엇에 의존하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3. 이와 같은 행위 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4.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체계화 될 수 있는가?
5. 개인적이거나 사람들간의 행위 순서의 연속에 대해 어떤 제약들이 있는가?”²⁾

이 논문에서는 '언어행위 이론'으로서의 화행론이 독일에서 어떻게 수용 및 변용 되고 있는지 몇몇 대표적인 화행론 언어학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화행론의 성립과 독일에서의 수용

이와 같은 화행론의 '선구자'로서 두 명이 언급된다. L. Wittgenstein과 J. L. Austin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 L. Wittgenstein은 '언어게임개념(Sprechspielkonzept)'에 염두를 둔 반면, J. L. Austin은 언어행동(Sprechhandeln)에 염두를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언어이론을 취합하여 화행론을 창시한 이는 J. R. Searle이다. J. R. Searle(1971)은 <언어행위. 언어철학수필 Sprechakt. Ein sprachphilosophischer Essay>에서 화행론 이론을 발전시킨다.

Searle이 Wittgenstein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Searle은 Wittgenstein은 철저하게 오해를 한다. Wittgenstein이 언어를 하나의 예로서, 즉 언어

Einfuehrung in moderne Theorie der grammatischen Beschreibung(이집출 옮김. 1991. 언어학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pp. 383-385.

2. 앞의 책, p. 388.

를 하나의 게임으로 고찰할 것을 제안한 반면, Searle은 언어철학자가 아니라 언어학자처럼 학문적 차원에서 언어를 이야기한 것이다. Wittgenstein 이외에 Searle은 다른 한편으로 Austin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들 3인의 차이를 하나의 질문에 대한 3인의 예상 답변을 가지고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게임에 있어서 그 경우의 수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이에 대해 Wittgenstein은 무한하다고 답변할 것이다.³⁾ 반면 Searle은 그 한계가 있다고 답변할 것이고, Austin은 그 물음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다. 즉 ‘우리가 같은 질문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화행론이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수용 및 변용된 것은 F. Hundsnurscher, G. Hindelang W. Franke 등에 의해서이다.

독일에서 화행론의 변용은 의미(meaning)에 관한 문제로서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언어철학자와 달리 언어의 구체적 쓰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언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3. F. Hundsnurscher의 ‘대화문법’

언어학자 Hundsnurscher(1980)의 논문 <대화분석 대 대화문법 Konversationsanalyse versus Dialoggrammatik> 등에서 화행론의 수용 및 변용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Hundsnurscher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를 문장이 아닌 쌍방간의 대화의 형태를 갖는 언어행위(화행)로 파악하였다. Hundsnurscher에 따르면 언어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특정한 언어(혹은 음성)의 표현양식을 사용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바로 언어행위이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한가지라도 결여된다면 언어행위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제대로 된 언어행위의 가장 규칙적인 조합을 그는 대화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화행론은 다름 아닌 대화문법(Dialoggrammatik)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Hundsnurscher의 주장이다. 그의 대화문법 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3) Wittgenstein, L. 1993. *Werkausgabe* Bd. 1: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Frankfurt a.m. stw 501. pp. 250 참고.

1. 대화를 여는 언어행위, 예컨대 요구, 비난, 제안 등...

2.1. 상기 1.에 대한 상대방의 긍정적 대응 -- 이렇게 되면 언어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며 그것으로서 언어행위는 완성된다.

2.2. 상기 1.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 대응 -- 이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언술한다:

2.2.1.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되묻기

2.2.2. 그렇게 말한 배경을 물어보기

2.2.3.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반박 혹은 거부

2.2.4.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한 대응회피

3. 맨 처음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상대방이 상기 2.2.의 경우처럼 반응할 때 이에 대해 다시 새로운 언어행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언어행위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3.1. 자기가 처음 말한 것을 반복하거나 자세히 설명 혹은 해명

3.2. 자기가 처음 말한 것에 대한 이유 설명

3.3. 자기가 처음 말한 것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철회

3.4. 상대방의 대응회피가 어떠한 종류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4. 3.1. 및 3.2.에 대해 상대방이 납득하여 수용하면 언어행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반면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거나 거부할 경우 언어행위는 중단된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회피가 어떠한 종류인가에 따라 대화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나타날 수 있다. Hundsnerscher는 이와 같은 대화문법을 통해서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문법적 체계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⁴⁾ 따라서 Hundsnerscher의 화행론 수용은 일상언어생활에서의 반듯한 의사소통을 꾀하자는 지극히 실용적인 차원으로 변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언어학자 G. Hindelang(1983)은 <화행론 입문Einfuehrung in die Sprechakttheroe>을, 그리고 W. Franke(1990)는 <기본적인 대화구조 Elementare Dialogstrukturen> 등의 저서로서 자신들의 화행론 수용 및 변용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화행론 수용은 앞서 소개한 Hundsnerscher와 마찬가지로 Searle이나 Austin의 '고전적 화행론', 즉 언어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언어학적인 것이다. Hindelang과

4. Hundsnerscher, F. 1980. "Konversationsanalyse versus Dialoggrammatik", in Jahrbuch fuer Internationale Germanistik. Akten des VI. Internationalen Germanisten - Kongresses Basel, Bern/Frankfurt a.M./Las Vegas, pp. 89-95 참고.

Franke이 화행론을 어떻게 변용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G. Hindelang(1983)의 화행론 변용

Hindelang 화행론에 대한 개념 정의를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언어행위의 제형식들을 연구하는 것”⁵⁾이라고 하여 언어철학자들의 화행론과 언어학자로서의 자신의 화행론을 분명하게 구별시킨다.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철학함(Philosophieren)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그러한 불분명성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수단의 사용에 대해서 명백히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반면 언어학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개별언어의 전체 체계를 목전에 두고 언어표현형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화행론의 도움을 빌어 전통적인 언어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언어학자로서의 Hindelang은 언어의 여러 현상에 대해 던지는 핵심질문 혹은 주장을 다음 3가지로 압축한다:

- “1.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을 하는가?(Was tun wir, wenn wir prechen?)
2. 우리가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Was tun wir, indem wir prechen?)
(...)
3.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아주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해왔다. 이제는 그만 말은 그만두고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한다”⁶⁾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말 그 이상의 것, 즉 인사를 하는 행위, 자신을 소개하는 행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행위, 어떤 제안을 하는 행위, 남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말을 한다는 것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Hindelang의 입장에서 언어철학적 사유나 논쟁은 지금까지 충분히 행해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과 행동과의 괴리된 논쟁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Hindelang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것’ 모두가 행위이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긴 있지만 둘 모두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Hindelang은 이 둘을 ‘실

5. Hindelang, G. 1983.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Tübingen, p. 1.

6. 앞의 책, p. 4

친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으로 구분한다.

'실천적 행동' 속에는 예컨대 '춤 추다', '요리를 하다', '발을 갈다' 등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며, '언어적 행동' 속에는 '이야기하다', '부탁하다', '칭찬하다' 등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된다. Hindelang은 '살친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바로 화행론을 토대로 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학자로서의 Hindelang은 자신의 화행론은 당연히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언어행위, 예컨대 부탁함(Bitten), 질문함(Fragen), 주장함(Behaupten) 등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예문으로 하여 Hindelang의 이론을 설명해보자.

- (1) 아들: a. 아빠, 신발 벗는 것 도와드려요?
b. 분명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 (2) 아버지: 도와주겠다고?
- (3) 아들: 물론이지요, 아빠가 원하신다면.
- (4) 아버지: 그런데, 너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친절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할지 물어보아도 되겠니?
- (5) 아들: 에이, 무슨 말씀을, 아빠.
- (6) 아버지: a. 아냐, '무슨 말씀'이라니.
b. 너에게 묻는데, 얼마가 필요하니?
- (7) 아들: 사실은, 아빠, 돈이 한푼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 (8) 아버지: '안돼'라는 것이 내 대답이다.
- (9) 아들: 아빠, 저 좀 도와 주셔야돼요!
- (10) 아버지: 안돼, 아들이!
- (11) 아들: 아빠, 제발. 저는 단지 약간의 호주머니 돈만 있으면 되요. 그것이 전부예요.
- (12) 아버지: a. 잘 들어!
b. 이제 내가 말을 좀 들어보아!
c. 진실로, 너의 말은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Hindelang의 화행론에 따라 이것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개별적 언표 내적 역할(illokutionaere Rolle isoliert)

- (1a) 제안
- (1b) 추측
- (2) 질문
- (3) -
- (4) 질문
- (5) -
- (6a) -
- (6b) 질문
- (7) 주장
- (8) -
- (9) 부탁
- (10) -
- (11) 부탁
- (12a) 요청
- (12b) 요청
- (12c) 금지

직접적인 연속관계 속에서의 언표 내적 역할(illokutionaere Rolle im unmittelbaren Sequenzzusammenhang)

- (1a)
- (1b) (1a)에 대한 이유설명
- (2) (1a)에 대한 확인질문
- (3) (2)에 대한 답변
- (4)
- (5) (4)에 대한 기피
- (6a) (5)에 대한 기피
- (6b)
- (7)
- (8) -
- (9)
- (10) (9)에 대한 거부
- (11)

- (12a)
- (12b)
- (12c)

텍스트 관련 속에서 역할(Rolle im Textzusammenhang)

(1a)

(1b)

(2) (1a)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

(3) (1a)에 대한 확인

(4) (1a)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견지

(5)

(6a)

(6b) (4)의 입장을 견지; (1a)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견지

(7) (9) 및 (11)의 언술에 대한 예비적 이유설명

(8) (예상되는 부탁)에 대한 거절; (9) 및 (11)에 대해서

(9)

(10) (8)의 입장을 견지

(11) (9)의 입장을 견지; (7) 및 (9)를 엄밀하게 규정; (4)에 대한 답변

(12a)

(12b)

(12c) 대화의 중단; (9) 및 (11)의 입장을 계속하여 견지하는 것에 대한 금지, (9)에 대한 최종적인 거절; (8) 및 (10)의 입장을 견지

위와 같은 언술에 대한 분석은 Hindelang으로 하여금 ‘화행모델(Sprechhandlungsmuster)’을 내놓게 한다. 일련의 동사들을 몇 가지 무리로 분류하여 ‘부탁함’, ‘명령함’, ‘금지함’, ‘정리함’, ‘요구함’, ‘추천함’... 등과 같은 화행모델 속에 배속시킴으로서 언술들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행모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Austin이나 Searle의 5대 분류법인 ‘Repraesentativa, Direktiva, Kommissiva, Espressiva, Deklarationen’⁷⁾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Searle(1975)의 5대

7. Austin, J. L. 1979. Zur Theorie der Sprechakte(How to do things with Words)(Deutsche Bearbeitung von E. v. Savigny) pp. 169-183. 참고

분류법에서는 동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Repraesentativa: 주장하다, 통지하다, 보고하다, 알려주다, 서술하다....

Direktiva: 간청하다, 명령하다, 금지하다, 제안하다....

Kommissiva: 약속하다, 보증하다, 맹세하다, 합의하다....

Espressiva: 감사를 표하다, 모욕을 주다, 축하하다, 불평하다....

Deklarationen: 임명하다, 해고하다, 지명하다, 선포하다, 세례를 주다....

그러나 Hindelang은 Austin이나 Searle의 5대 분류법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세분화하여 '화행모델(Sprechhandlungsmuster)'이라고 이름지었다. Hindelang은 이러한 화행모델이 하나의 모델로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화행조건, 화행수단, 화행목적의 3가지이다.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서 어떠한 목적으로 언어행위를 하는가를 고려해야하면 화행모델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⁸⁾

Hindelang은 Hundsnurscher와 마찬가지로 언어철학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언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그 언술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술의 불분명과 애매모호 함으로 인한 언어와 행동의 괴리를 지양하고 언어가 곧 행동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Austin이나 Searle의 화행론을 철저하게 실용화하려고 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철저하게 폭해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5. W. Franke(1990)의 '확장된 화행론'

Hundsnurscher와 Hindelang의 화행론이 언어행위의 기본 단위로서의 한 문장(Satz)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W. Franke는 언어행위는 한 사람의 언술, 즉 한 문장이 아니라 두 사람간의 대화(Dialog)로 완성되기 때문에 대화문장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화행론의 틀을 확장시켜 '확장된 화행론(Erweiterte Sprechakttheorie)'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⁹⁾

8) G. Hindelang. 앞의 책 p.54-56면 참고

9) Franke, W. 1990. Elementare Dialogstrukturen. Darstellung, Analyse, Diskussion, Tuebingen: Max Niemeyer Verlag. p. 11-14면 참고.

쌍방간의 대화가 진행될 때 처음 화자의 언술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존의 화행론이라면, 상대방의 대응 양식에 대한 분석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확장된 화행론'이다. 이러한 '확장된 화행론'은 궁극적으로 대화분석으로 귀착된다고 보았다. 결국 앞에서 소개한 Hundsnurscher의 '대화문법'과 같은 것이다. 화행론이 결국은 '대화문법'으로 변용된 셈이다. Franke는 이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한다¹⁰⁾:

초기 화행	긍정적 답변	부정적 답변
부탁함	허락함	거부함
질문함	대답함	답변 거부함
주장함	동의함	논박함
제안함	수용함	거절함
...

이와 같은 기본 분석틀을 바탕으로 Franke는 쌍방간의 대화 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론이 확대된다고 이야기한다¹¹⁾:

최초의 화행 유형(정통 화행 이론)--확장된 화행 이론--대화 이론

Franke의 이와 같은 기본도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대화문장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 (1) 화자 1: 오늘 도서관에 내가 빌린 책 좀 반납해주겠니?
- (2) 화자 2: 왜, 나에게 말하지. 내가 너의 가방 들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니?
- (3) 화자 1: 나도 지난주에 너의 책을 반납해 주었잖아.
- (4) 화자 2: 어떤 책을?
- (5) 화자 1: 구청 도서관에 반납했던 책 말이야.

10) 앞의 책 p. 19 참고
 11) 앞의 책 14면 참고

- (6) 화자 2: 그것은 별개 문제지.
- (7) 화자 1: 별개의 문제라고 - 너 자신도 내 신세였던 것을 안 믿는구나!
- (8) 화자 2: 어쨌든 나는 오늘 시간이 없어. 나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돼.
- (9) 화자 1: 어디서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 (10) 화자 2: 인사동에서
- (11) 화자 1: 그렇다면 가는 길에 반납해 줄 수 있지 않니?
- (12) 화자 2: 왜, 너 스스로가 하지 않니?
- (13) 화자 1: 너도 알잖아. 나 지금 바로 어학연수 떠난다는 것. 나 한 달 뒤에야 돌아와.
- (14) 화자 2: 어쨌든 나는 시간이 없어.
- (15) 화자 1: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연체료를 물 수밖에. 너하고 이 일로 다루고 싶지 않아.

위 문장을 Franke의 대화 분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화자 1: 요청함
- (2) 화자 2: 이의 제기함
- (3) 화자 1: 이의제기를 면박함
- (4) 화자 2: 되물음
- (5) 화자 1: 답변함
- (6) 화자 2: 이의 제기함
- (7) 화자 1: 퇴짜놓음
- (8) 화자 2: 이유를 달아 거절함
- (9) 화자 1: 보충 질문함
- (10) 화자 2: 답변함
- (11) 화자 1: 요청함
- (12) 화자 2: 이의 제기함
- (13) 화자 1: 이의제기를 면박함
- (14) 화자 2: 부정적 답변
- (15) 화자 1: 대화를 그만둠

이와 같은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Franke는 다음과 같은 '확장된 화행론' 모델을 제시한다¹²⁾:

1. 화자1이 대화를 시작하는 언어행위 시작; 예컨대 제안, 비난, 요구...
- 2.1. 화자2의 긍정적 답변
- 2.2. 화자 2의 부정적 답변
- 2.3. 화자 2가 화자 1의 발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응방식
 - 2.3.1. 화자1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기
 - 2.3.2. 화자 1이 그렇게 말한 배경을 묻기
 - 2.3.3. 화자 1이 말한 내용을 반박 혹은 묵살
 - 2.3.4. 화자 1이 말한 것에 대한 대응회피
- 3.1. 화자 2가 2.1.처럼 대응할 때 화자 1의 언어행위 목적은 달성되고 언어행위는 종결됨.
- 3.2. 화자 2가 2.2.처럼 대응할 때 화자 1의 언어 행위 목적은 달성되지 않음. 이때 다음과 같은 언어행위들을 예상할 수 있음.
 - 3.2.1. 화자 1이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 화자 1의 언어행위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함. 그리고 대화는 중단됨.
 - 3.2.2. 화자 1이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여 견지(이 경우 대화는 1.로 되돌아감)
 - 3.2.3. 화자 1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 내용을 변형시켜 시작. 이 경우 화자 1은 화자 2로부터 1)긍정적 답변, 2) 부정적 답변 혹은 3)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전혀 다른 대응을 접하게 된다.
- 3.3. 3.2.3.의 3)에 대해서 화자 1의 대응양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3.3.1. 화자 1이 1.에서 행했던 언술을 반복하거나 부연설명하거나 혹은 요약을 한다.
 - 3.3.2. 배경설명을 한다.
 - 3.3.3. 자신의 언술 내용을 계속하여 고집하거나 혹은 포기한다.
 - 3.3.4. 화자 2의 대응회피의 종류에 따라 화자 1의 언어행위는 달라진다. 예컨대 화자 1은 화자 2의 다음 언어행위를 기다리거나. 또는 화자 2로 하여금 절정적인 언어행위를 하도록 촉구한다.
- 4.2.2.1. 화자 2의 양보(이 경우 화자 1의 목적은 달성된다)
- 4.2.2.2. 화자 2의 대화 중단(언어행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 4.2.2.3. 화자 2가 대응하는 언어행위는 2.에 상응된다.
- 4.3. 화자 2의 긍정적 답변 혹은 부정적 답변.

12) 앞의 책 78면 이하 참고.

7. 결론

Wittgenstein, Austin, Searle 등의 언어철학에서 태동한 화행론이 독일의 현존 언어학자 Hundsnurscher, Hindelang, Franke 등에 의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자 그룹이 언어철학자들이었다면, 후자들은 언어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어 그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장 하나 하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었다. 또한 언어의 기본 단위는 문장에서 시작하지만, 제대로 된 언어행위는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문법'이론이 나오게 된다. 대화문법은 쌍방간의 대화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그 문장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한다. 이때 전제되는 세 가지 조건, 그러한 언어행위의 의도, 언어 행위를 하는데 사용된 수단, 그러한 언어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고려할 때에 비로소 정확한 의도가 파악되는데, 이때 Searle이나 Austin의 5대 분류법인 'Repraesentativa, Direktiva, Kommissiva, Espressiva, Deklarationen'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류를 시도한다. 즉 모든 동사를 일정한 군으로 분류하여 예컨대, '요청함, 명령함, 금지함' 등과 같은 하부 '화행모델(Sprechhandlungsmuster)을 설정한다. 이 하부 '화행모델을 가지고서 모든 대화문장들을 분석할 때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올바른 언어행위, 즉 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즉 그들은 '대화문법'이 화행론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 대화문법이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전제하지만 그 이상의 다자간의 대화, 한 개인의 내면의 독백, TV 언어 등까지도 '대화문법'을 바탕으로 '복합 대담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능성까지를 내비치고 있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화행론'은의 수용과 변용의 가능성 순차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짓는다:

1. 단순(정통)화행론(Einfachre orthodoxe Sprechakttheorie)
2. '확장 화행론' (Erweiterte Sprechakttheorie)
3. '대화문법'(Dialoggrammatik)
4. 복합 대담이론(Gespraechstheorie; Theorie komplexer Diskursformen)

13) 앞의 책 pp. 135 이하 참고.

참고문헌

- Austin, J. L. 1975. Zur Theorie der Sprechakte(How to do things with Words).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 Franke, W. 1990. Elementare Dialogstrukturen. Darstellung, Analyse, Diskussion, Tuebingen: Max Niemeyer Verlag.
- Grewendorf, G./Hamm, F/ Sternfeld, W. 1987. Sprachliches Wissen - Eine Einfueherung in moderne Theorie der grammatischen Beschreibung(이점출 옮김. 1991. 언어학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 Hindelnag, G. 1983. Einfueherung in die Sprechakttheorie.Tuebingen.
- Hundsnurscher, F. 1980. "Konversationsanalyse versus Dialoggrammatik", in Jahrbuch fuer Internationale Germanistik. Akten des VI. Internationalen Germanisten - Kongresses Basel, Bern/Frankfurt a.M./Las Vegas.
- Searle, J. R. 1982.Ausdruck und Bedeutung. Untersuchungen zur Sprechakttheorie. Frankfurt a.M: Suhrkamp
- Wittgenstein, L. 1993.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Wittgenstein, Werkausgabe Bd. 1: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Frankfurt a.m.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우석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양학과
E-mail : dgkim@ core.woosuk.ac.kr
Fax: +82-652-290-9312